

기고

겨울철 안전,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겨울철은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실내 활동이 늘고 난방장치, 열선,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과 상가, 축사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 특성상 전기화재는 초기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기량이 많아 대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전기화재의 대부분은 과부하, 과열, 접촉불량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다.

전열기구를 한 멀티탭에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접히거나 눌린 전선·전기장판으로 인한 과열, 오래된 전선 피복 손상, 차단기·배전반 내부 먼지로 인한 누전 등은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특히 열선의 겹침, 묵은 먼지, 느슨해진 전선 접촉처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은 더욱 치명적이다.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기히터는 반드시 전용 콘센트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작동 시 간헐적으로 켜켜 주어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이나 방석 등을 겹쳐 덮지 말고, 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둘 경우 내부 열이 갇혀 발화 위험이 높아진다. 또 열선은 겹침·눌림 없는 '직선형 설치'가 원칙이며, 오래된 멀티탭이나 콘센트는 3~5년 주기 교체가 안전하다.

전기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뽑기▲멀티탭에 전열기구 2대 이상 연결 금지▲피복 손상 전선은 즉시 교체▲타는 냄새·스파크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전원 차단▲취침 전 난방기기 전원 OFF 확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시험 버튼으로 점검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화재를 미연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다.

전기화재는 화염 확산과 연기 발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화재에는 물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분말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합하다.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 이상 설치가 필수이며, 실제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은 가족·직원 이 모두 숙지해야 한다. 또한 "경보음 울림 → 전원 차단 → 119 신고" 기본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두면 만일의 상황에서 침착한 대처가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은 작은 부주의 하나로 시작되는 예방 가능한 사고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오늘 하루, 콘센트 하나, 스위치 하나부터 점검해 보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가족 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위승빈

앞 호에서 우리는 엥겔스가 친구인 마르크스를 얼마나 끔찍이 위했는지 살펴 보았다. 옷이 전당포에 잡혀 있는 상황, 파산까지 선고하려 맘먹고 있던 마르크스에게 엥겔스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에 마르크스의 딸들은 엥겔스를 삼촌으로 여겼고, 엥겔스 역시 마르크스가 죽은 후에까지 그의 딸을 돌보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엥겔스의 '우정'에 대해 제대로 된 보답하기는커녕 어깃장을 놓는다. 엥겔스가 자신의 아내를 잃고 커다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마르크스는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로의 말보다도 '구결의 내용'이 훨씬 길었다는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둘 사이가 서먹해졌다가 다시 화해하였다던 건데,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하녀와 연애소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먼저 나간 것이다. 그 내용이 너무 악의적이어서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마르크스)는 하녀에게 임신 시켰으며(1851년), 이 일 때문에 아내인 예니의 고통은 일생 가운데 최고조에 달했다. 더구나 마르크스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속이고자 하녀의 상대역을 엥겔스에게 맡겼으며, 죽음에 임박해서야 엥겔스

강성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철 철학티비, '강성철을 문학티비' 운영중



철학자들의 우정-마르크스와 엥겔스(4)

가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고 왜곡되었다 해도, 이 연애 사건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흐트러지고 만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마르크스의 도에 넘는 '배신 행위'와 온갖 실망스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엥겔스 자신은 끝끝내 아름다운 우정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이를 악물고 연구를 계속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평가할만 하다고 하겠다.

1850~1864년까지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인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대영박물관의 도서관에 다니면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한편, 1851년부터 미국의 <뉴욕 트리뷴>지의 유럽 통신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때 (영국) 맨체스터에서 아버지의 방적 공장에 근무하고 있던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또다시 재정적 원조를 보내왔으며, 이러한 일들로 마르크스 가족은 경제적 곤란을 조금 벗어나게 된다.

1865년부터 마르크스는 필생의 대작인『자본론』을 쓰기 시작하여 3년 후, 제1권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전체 모습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의 유물

론 사상을 집대성한 이 저서의 2권과 3권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친구인 엥겔스에 의해 출판되었다.

1881년 12월에는 아내의 죽음으로, 1883년 1월에는 큰딸의 죽음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마르크스는 그해 3월 14일, 런던 자택에서 평생의 친구이자 협력자인 엥겔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64세로 일생을 마쳤다. 엥겔스는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대자는 많았으나, 개인적인 적(敵)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의 이름은 수백 년이 지나도 살아있을 것이며, 그의 저서도 그럴 것이다."

엥겔스는 마르크스 사후(1883)『자본론』제2-6권의 간행에 몰두하면서, 유럽 국가들에 있어 노동 운동의 지도적인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75세가 되던 1895년 8월 5일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로든, 엥겔스의 추도사를 현실로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친구가 살아있을 때에나 죽은 후에나 변함없이 그를 지지하고 사랑한, 고매한 한 인격을 보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끝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겨울철 화목보일러,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진도소방서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알리고자 한다.

화목보일러는 구조상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기 전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어,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주변 가연물에 쉽게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다. 또 실제로 매년 겨울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들이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첫째, 사용 전 점검하기다. 보일러와 연통에 녹이 슬었거나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 번만 살펴봐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연통 관리하기다. 그늘음은 금방 쌓이기 때문에 가끔씩 청소하고, 필요하면 수리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연통이 지나가는 부분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해 두면 더 안전하다.

셋째, 장작 투입 후 덮개 닫기다. 장작을 넣은 뒤에는 덮개를 꼭 닫아 불티가 밖으로 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보일러 주변 정리하기다. 종이, 목재, 비닐 같은 가연물은 보일러 근처에 두

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주변을 조금만 비워도 화재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다섯째, 재 안전하게 처리하기다. 겹보기엔 식은 것 같아도 속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재는 뚜껑 있는 금속통처럼 타지 않는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식혀야 한다.

김재철 진도소방서장은 “내 집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노은서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음력 12월 15일)

48년생 이웃간치에 취임새를 놓아주자 60년생 힘든 삶을 살았다고 비가 지내다 72년생 영광된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84년생 야속한 반역에 고개가 숙여진다 96년생 꾸준했던 연성이 결과로 보여진다.

49년생 사소한 의견차이 약자가 되어주자 61년생 땅 짚고 헤엄치기 쉽고 편히 간다 73년생 비정한 승부사 반드시 이겨 85년생 우정인지 사람인지 선을 그어보자 97년생 뒤쳐져 있는 공부 각오를 다시 하자.

50년생 아름다운 기억을 되찾아 올 수 있다 62년생 강난기도 척척 동심으로 돌아간다 74년생 우연한 만남 필연임을 알아 86년생 변화의 차디찬 후내로 내보내자 98년생 열매나 잘하니 시대에 올라보자.

51년생 지름길이 없다. 느리고 천천히 가자 63년생 대목 맞은 경사 곳간이 든든해진다 75년생 나감한 부푼에 이유를 가져보자 87년생 숫자 계산은 다시 보고 확인하자 99년생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가져보자.

52년생 고생 끝에 낙 두드리려 뻔해보자 64년생 과감하지 못했던 후회 가 남겨진다 76년생 차츰은 유명세 비싼 값이 매겨진다 88년생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받아보자 00년생 그렇게 길 가라는 확신을 가져내자.

53년생 결반의 성공이면 만족을 가져보자 65년생 익숙한 상황에서 조심을 더해보자 77년생 예민한 반응에 심판을 찍어 89년생 소박한 진치로 기쁨을 대신하자 01년생 스승을 위협하는 제자가 되어보자.

54년생 골고당기던 거래도장이 꺾혀진다 66년생 걱정하는 반대와 맞서 싸워보자 78년생 포기할까 순간 기회임을 알아내자 90년생 무엇이 하는 수고함을 합쳐보자 02년생 대답 없는 애마리 쓸쓸히 돌아서자.

55년생 한우를 파던 고집만세가 물러진다 67년생 큰 나무 뿌리처럼 역경과 맞서보자 79년생 애정 전선에 포근함이 더해진다 91년생 천릿길 멀었던 목표가 보여진다 03년생 급해지는 속도에 제동을 걸어야지.

56년생 뜨거웠던 기대 찬바람이 스쳐간다 68년생 안보도 이해도 통틀게 해야 한다 80년생 초보 같은 실수 판자들 미명하다 92년생 주어진 조건에서 보석을 찾아내자 04년생 무한경쟁으로 어려움과 맞서보자.

57년생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돌려보자 69년생 여전히 복잡해도 처음을 지켜 81년생 절대 겸손으로 가치를 높여보자 93년생 형만 한 이유 없다. 경향을 빌려오자 05년생 필요했던 충고 감사함을 가져보자.

58년생 길어지는 냉전 백기 들어 항복하자 70년생 보기 싫은 광경은 애써 무시하자 82년생 거절은 차근차근 무효를 찍어 94년생 착한 가격으로 남비를 막아내자 06년생 어깨 무거운 책임이 맡겨진다.

59년생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내자 71년생 나란히 밧발추는 식구가 되어주자 83년생 막간의 여유 추억을 만들어 95년생 길으로 화려하고 속으로 초라하자 07년생 목적이 다른 만남 비뚤게 헤어지자.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Express (Korea Express) celebrating 50 years of high-speed roads. Features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